“순천서 무더위 날려요”… 시원한 여름 이벤트 마련

걷기대회 등 지역 행사 다채
문화유산 야행·팔마문화제
아일랜드·청춘 페스티벌도
“무더위와 스트레스 날리길”

순천시가 여름 무더위를 날릴 여름 행사를 마련했다.

순천시는 마음껏 뛰고 걸을 수 있도록 오는 16일 ‘동천 리버워킹 걷기 대회’를 개최한다. ‘동천 리버워킹 걷기 대회’는 순위 경쟁 없이 그린아일랜드에서 출발하여 동천을 따라 원도심까지 함께 걷는 행사다.

참여자들은 저마다의 속도에 맞춰 걸으며 평소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동천과 순천의 저녁을 눈에 담을 수 있다. 종료지점인 남문터 광장에 도착하면 ‘문화유산 야행’과 ‘팔마문화제’ 행사장으로 이어져 화려한 원도심의 야간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향동·매곡동 일원에서는 △문화유산 야행과 △팔마문화제가 동시에 열린다. 올해 순천시는 서로 다른 성격의 행사의 장점을 융복합해 원도심을 전 세대의 취향을 저격할 행사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문화유산과 건축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문화유산 야행은 건축유산과 미디어 기술을 연계해 8가지 테마의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15일 기념식에서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매산등 선교마을’ 내부의 근대 건축 유산을 100년 만에 대중에게 전면 개방해 그 의미를 더한다.

올해로 41회째 맞이하는 ‘팔마문화제’는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개최된다. 시는 ‘정렴’이라는 조금은 딱딱한 주제를 다양한 문화콘텐츠에 접목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모두 채워 시간 가는 줄 모를 풍성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유튜버 ‘궤도’의 인문학 콘서트, ‘서이브’와 함께하는 탕후루 챌린지 등 색다른 콘텐츠들이 축제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순천시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박 2일간 관광객과 시민에게 한여름 밤의 꿈 같은 시간을 선사하고자 한다.

그린아일랜드서 개최되는 ‘캠핑으로 그린 아일랜드’ 행사는 가족 또는 연인들과 함께 도심 속에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행사다. 캠핑뿐 아니라 마술 공연, 버스킹 등 공연 프로그램과 비어 요가, 새벽 어싱과 같은 이색 헬스 프로그램도 마련해 캠핑족들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순천시가 ‘동천 리버워킹 걷기 대회’ 등 여름 행사를 마련했다. 오천그린광장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시민들. 순천시 제공

다만, 그린아일랜드 위에서 취사나 화기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순심이 배달존’을 운영하고 발열 도시락을 제공할 계획이다.

오천그린광장에서는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2024 청춘 페스티벌’이 함께 열릴 계획이다. 지역의 젊은 청년들로 구성된 청춘 여행 길잡이가 직접 기획하는 이번 행사는 시원한 맥주와 맛있는 치킨을 먹으면서 여름밤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어쿠스틱 밴드 공연, EDM 공연 및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볼거리를 더해 관광객들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무더운 날씨로 마음까지 지칠 수 있는 요즘, 여름의 한가운데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여름밤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순천에서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버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급경사지 정비사업지구 현장점검
구례군, 위험 요소 제거 목표

구례군은 좌사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군도12호선 노고단 일주도로)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지는 절개지 사면에서 토사 유실 및 낙석 발생, 옹벽 균열 등 붕괴 우려가 있는 급경사지 지역으로,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에 약해진 사면 등 현장 안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올해부터 급경사지 구간(시암재~성삼재) 정비사업을 통해 붕괴 우려 등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까지 120억 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사면보강, 옹벽 및 낙석방지책 설치 등으로 군도 12호선 이용자 및 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이길용 구례부군수는 현장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비는 물론 예산 절감 및 안전을 강조하며 “최근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군민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 지역회의’
광양시 광영동사무소

광양시(광영동)는 1일 광영동사무소에서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 지역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영동어울림센터 주민쉼터 시설물 조성사업’ 등 주민과 밀접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는 13개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으며, 사업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눈 끝에 원안대로 최종 선정했다.

김재호 광영동 주민참여 예산편성 심의 지역회의 위원장은 “광영동의 현안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됐다”라며 “광영동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지난달 31일 장흥에서 열린 ‘장흥 락 페스티벌’ 공연에 시민들이 큰 호응을 보이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 물축제의 시원한 울림 ‘장흥 락 페스티벌’

‘제17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장’에서 장흥 락 페스티벌이 열렸다.

올해 물축제장서 첫 선을 보이는 장흥 락 페스티벌은 지난 7월 31일과 8월 1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다.

지난 7월 31일 공연에는 국카스텐, 로맨틱펀치, 내귀에도청장치, 네미시스, 악퉁, 로큰롤라디오가 무대에 섰다.

오후 4시 물축제 주무대에서 막을 올린 락 페스티벌은 오후 10시까지 이어졌다.

각 밴드는 약 1시간 씩 무대를 책임지며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 냈다.

1일에는 윤도현밴드, 크라잉넛, 트랜스픽션, 맥거핀, 캐치더영, 스킵잭 등 유명 밴드가 총출동한다.

‘성난 고래의 노래’란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락 페스티벌은 음악과 함께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특별한 행사다.

바다 오염의 주범인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구의 수호자’ 고래 보호를 위해 모두가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장흥=김전환 기자

순천팔마유도트레이닝센터, ‘하계전지훈련 열기로 후끈’

7월 28일~8월 10일까지 2주간
전국 유도 꿈나무 300여명 참가

순천팔마유도트레이닝센터가 한국 유도 유소년 대표와 전국 유도 꿈나무 선수들의 하계전지훈련 열기로 후끈거리고 있다.

1일 전남도유도회에 따르면 2024년 유도 꿈나무대표선수로 선발된 유소년대표팀과 전국의 유도 꿈나무 등 총 300여명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2주간 순천팔마유도트레이닝센터에서 하계합숙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대한유도회가 주관하는 이번 하계합동훈련에서는 기본기 연습, 실전 기술 연마, 체력 단련은 물론 정신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훈련에는 국가대표 출신 지도자들이 참여해 전문적인 지도와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한 유망 선수는 “평소 존경하는 코치님들과 함께 훈련할 수 있어 매우 영광이며, 이번 합숙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양호 전남유도회 전무이사는 “이번 하계 합숙훈련은 전국에서 모인 유도 꿈나무들이 서로의 기량을 겨루고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자리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선수들이 체력과 기술을 더욱 갈고닦으며, 미래의 유도계를 이끌어갈 큰 재목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부터는 대학 및 성인 유도팀이 순천팔마유도트레이닝센터에서 2024 유도 스토브리그와 함께 인도네시아팀 초청 국제교류전도 펼치고 있다. 최동환 기자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 계획’
전남도-여수시, 수립 용역 추진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산업의 침체와 불황 장기화 우려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수 석유화학산업 위기대응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석유화학 분야 전문가와 관련 기업, 전남도, 여수시, 전남테크노파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계획 수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최근 석유화학 업계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유가 및 고환율에 대한 원가 부담,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성 저하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시대적 요구와 더불어 최대 수요처인 對중국 수출 감소,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 청정경쟁법(CCA) 등 주요국의 보호 무역 성격이 강해지면서 국내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확대·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 및 전문가들은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기존 범용제품 위주의 사업구조를 과감히 탈피하여 고부가·친환경 탄소중립 산업으로 신속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이번 용역을 통해 현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친환경 고부가 사업으로의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여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역의 주력 산업인 여수국가산단을 정밀 진단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실 있는 정책 및 육성방안 등이 논의되었으면 한다”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석유화학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당부
광양시, 균 검사 등 위생 관리

광양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비브리오패혈증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여름철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해수와 접촉하는 기회가 많은 5~6월경 발생하기 시작해 8~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비브리오패혈증 균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을 말한다.

주로 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하거나 상처에 바닷물이 접촉했을 경우 감염되며 보통 16~24시간의 잠복기를 가진다. 잠복기 후 급작스러운 발열, 오한,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초기 증상 후 24시간 내 하지 부종, 수포, 궤양, 괴사 같은 증상이 발현하며 치사율은 50% 내외에 달한다.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 먹기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기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하고 조리할 때 85도 이상 가열 처리하기 △어패류를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않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기 △어패류를 조리한 도마,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하기 △어패류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하기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광양=안영준 기자